

## 『노동리뷰』 4월호 - 특집

### ■ “노동시장 차별관행 실태-채용차별을 중심으로”(안주엽 연구위원)

- 우리나라의 채용차별관행 수준이 높은 집단은 50대 이상 고연령자, 여성(특히, 기혼여성), 고졸자, 장애인 순임.
-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은 남성위주업종(운수업, 자동차업, 건설업)에서 높은 반면, 그 외 업종은 뚜렷하지 않음.
  - ※ 사업체규모가 작을수록 여성, 장애인, 고연령자에 대한 차별관행이 심하며, 고졸자에 대한 차별관행은 사업체규모가 커질수록 심함.
-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낮을수록 사업체 연령이 많아질수록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이 심해지며, 가격저렴과 품질우수 제품을 특징으로 하는 사업체는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이 덜함.
- 고졸자에 대한 차별관행은 사업체 연령이 많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심하며, 업종효과를 보면, 금융 및 보험업, 통신업, 건설업, 자동차공업, 사업서비스에서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이 심함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안주엽 연구위원

Tel : 782-9071 E-mail : jyahn@kli.re.kr

\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

### 노동시장 차별관행 실태-채용차별을 중심으로

|     |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|
| 담당자 | 안주엽 연구위원    |
| 전화  | 02)782-9071 |

- 우리나라는 헌법과 여러 노동법제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 및 차별적 처우 또는 관행이 존재

- 채용에서 나타나는 차별관행을 한국노동연구원의 제 3차 『사업체패널조사』의 「비정규근로실태 부가조사」에 응답한 1,000개 사업체 자료를 통해 분석

<채용과정에서의 차별관행 설문>

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을 거쳐 동일한 능력과 잠재력을 가진 두 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입사원 최종선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이 중 한사람을 선발합니다. 두 사람이 각각 다음 조건(기준집단과 대상집단)을 가졌을 때, 100% 중 대상집단에 속하는 지원자를 선발할 가능성(확률)은 어느 정도입니까?

- 차별관행에 상대적으로 심하게 노출된 집단은 50세 이상 고연령자(33.7%), 기혼여성(36.9%), 여성(37.1%), 고졸자(37.5%), 장애인(38.6%) 순임.

※ 값이 50%에 가까울수록 해당 대상집단에 대한 차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.

- 채용차별의 실태를 보면, 차별관행의 대상집단이나 차별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.

-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수준은 운수업, 부동산 및 임대업, 자동차공업, 건설업에서 높으며,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에 대한 채용차별 수준은 전기 가스 수도사업, 이혼경험자는 자동차공업과 운수업, 장애인은 건설업 및 숙박 및 음식점업,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.

- 사업체규모와 채용차별수준 사이의 관계를 보면, 여성의 채용차별은

규모가 작을수록 높지만,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은 사업체규모가 커질수록 심하게 나타남.

- 대상집단간 차별관행의 상관관계를 보면,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혼여성, 이혼경험자, 경력자, 고졸자에 대한 차별관행도 함께 존재

○ 채용차별수준 결정요인 또한 여러 대상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.

-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의 결정요인은 사업체 연령이 많아질수록, 경쟁업체의 수가 증가한 사업체일수록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이 심해지지만, 시장점유율이 상승한 사업체일수록, 기존 제품의 수정 및 변화가 증가한 사업체일수록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은 덜하며, 사업체규모는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.
- 사업체규모가 클수록, (경공업에 비해)금융업 및 보험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채용차별이 덜한 것으로 나타남.
- 고령자에 대한 채용차별 결정요인을 보면, 업종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, 고연령자 비중이 높을수록, 근로자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고연령자에 대한 채용차별은 완화되고 있음.
-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 결정요인을 살펴보면, 오래된 사업체일수록, 사업체가 클수록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.